

광-펜톤을 이용한 테트라사이클린 제거

한치현^{1,2}, 양보람^{1,3}, 박정안¹,

김재현¹, 박희동^{2,3}, 이상협^{1,2,†}

¹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단;

²고려대학교 그린스쿨; ³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
(yisanghyup@kist.re.kr[†])

수계에 잔류하는 미량 항생물질인 테트라사이클린(TC)을 광-펜톤을 이용하여 산화제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. 광원으로는 254 nm 파장의 UV 램프(0.84 mW/cm^2)를 사용하였고, 초기 TC농도는 100 mg/L였다. TC제거에는 20 mg/L의 과산화수소와 1, 2, 5, 10 mg/L의 2가철을 사용하였고, 2가철 농도별 TC 제거율을 비교하였다. 2가철의 농도가 10 mg/L일 때의 TC 제거율이 가장 높았지만 많은 철 슬러지가 침전되는 것을 확인되었다. 따라서 20 mg/L의 과산화수소와 5 mg/L의 2가철을 펜톤시약 농도의 최적조건으로 판단하였고, 이때의 1차 반응속도상수, k 값은 $3.24 \times 10^{-3} \text{ s}^{-1}$ 이었다. 이 조건으로 4가지 음이온이 TC 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. 실험에 사용된 음이온은 Cl^- , HCO_3^- , SO_4^{2-} , HPO_4^{2-} 이고, 각각 10 mM의 농도를 사용하였다. 그 결과, 광펜톤을 이용했을 때 모든 음이온이 TC 산화를 방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, TC 제거율을 통해 비교한 TC분해에 대한 음이온의 영향은 $\text{HPO}_4^{2-} > \text{HCO}_3^- > \text{SO}_4^{2-} > \text{Cl}^-$ 순으로 높았다.

사사 (환경부 E416-00020-0606-0)